

2025년 7월
Incross Industry Report

모빌리티 업종 리포트



08-1 시장 현황

수출과 생산은 증가 추세, 전기차는 캐즘 극복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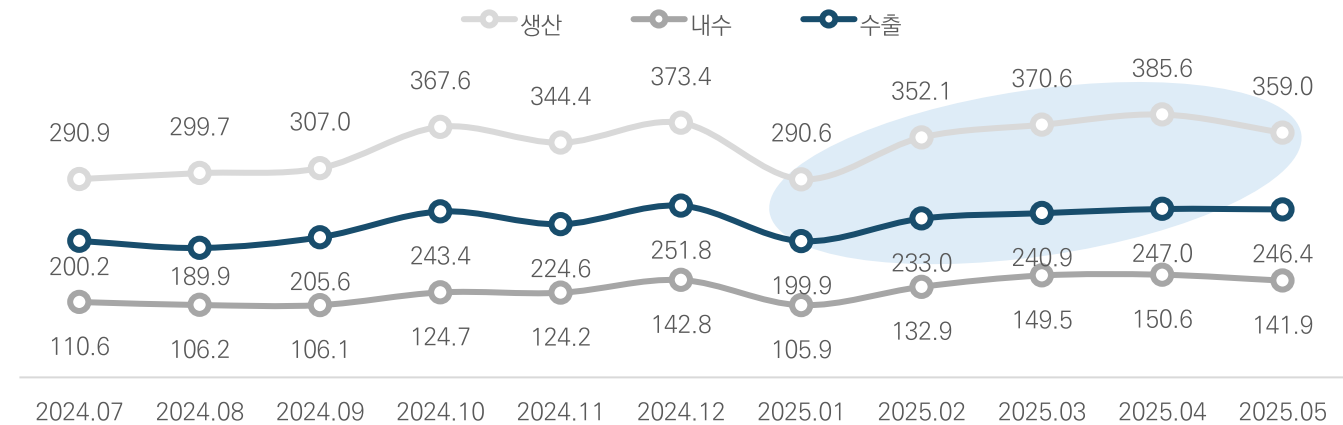
24년 4분기의 높은 실적으로 인해 증감률은 하락했으나, 상반기는 전반적으로 수출과 생산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친환경차 시장은 전기차 캐즘을 어느정도 극복하고 성장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성장률이 높음. BYD, Geely 등 중국 기업이 BEV, PHEV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HEV 시장은 기존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상위권을 차지

출처: (상)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하) SNE Research

월별 생산, 수출 모두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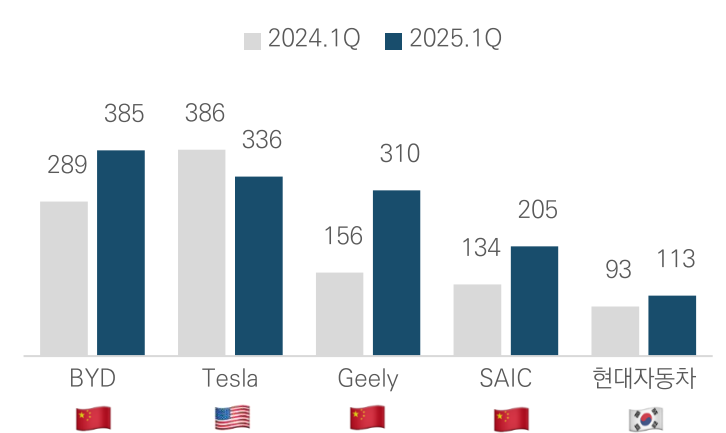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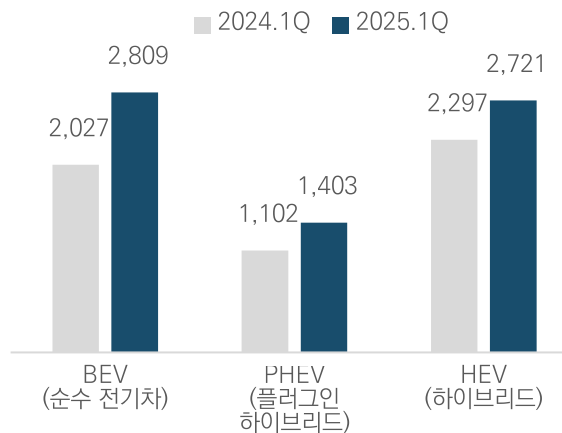
| 국내 월간 완성차 생산, 내수, 수출 (단위: 천 대)



친환경차 시장, 순수 전기차(B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중심의 빠른 성장

| 전세계 차종별 판매량 (단위: 천 대)

| BEV 주요 그룹사별 판매량(상위 4개 업체+현대차그룹) (단위: 천 대)



08-2 소비자 현황

여전히 낮은 자동차 구매 심리, 친환경차 구매 의향 상대적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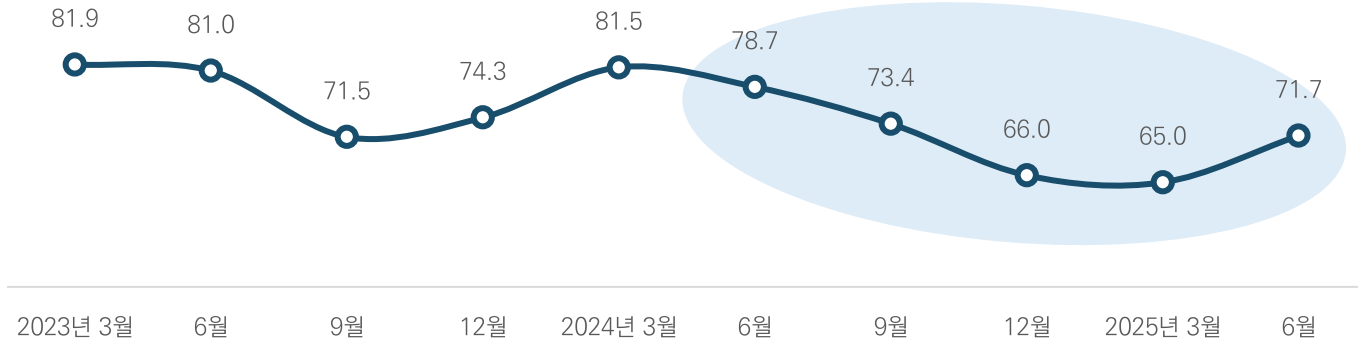
자동차 구매 심리 지수는 25년 2분기에 잠시 오르기는 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 해당 수치는 100보다 작으면 1년 내 자동차 구매 의향에 대해 긍정적 응답자가 부정적 응답자보다 적은 것으로, 자동차 구매 소비 심리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

소비자들은 하이브리드차 > 순수 전기차 > 내연기관차 순으로 구매 의향이 높았으며, 브랜드별로는 르노코리아 > 지프 > 볼보 > 테슬라 > 쉐보레 > 푸조 > 토요타 순으로 나타남

출처: 나이스디앤알

자동차 구매 심리 지수, 2분기에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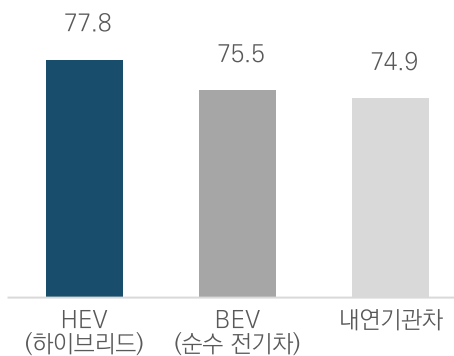
| 자동차 구매 심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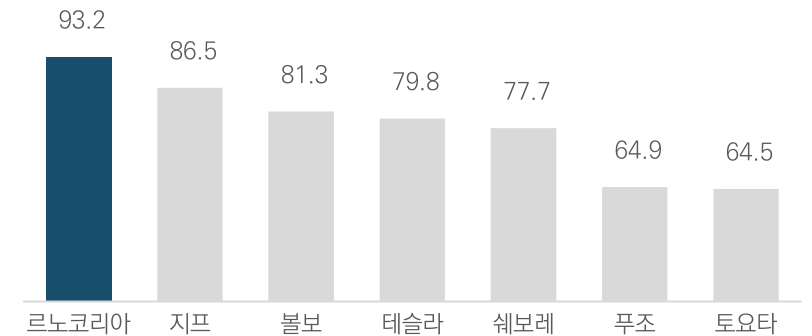
* (자동차)구매 심리 지수: 향후 1년 내 자동차 구매 전망을 지수화한 수치. 100보다 작으면 부정적 응답자가 긍정적 응답자보다 많은 것.

하이브리드차와 르노코리아의 구매 의향 높아

| 엔진 타입별 구매 심리 지수



| 브랜드별 구매 심리 지수



08-3 트렌드

#전기차 실속 경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전기차들의 가성비 경쟁

- 배터리 가격 감소, 중국 전기차 유입, 불황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전기차 소비가 가성비 중심으로 변화 중. 보조금 적용 시 2~3천만 원 대 소형급 신차들이 다수 출시되는 등 전기차 기업들 역시 저렴한 가성비 전기차를 중심으로 개발 중
- 전기차 평균 판매단가는 2023년 6,760만 원, 2024년 5,590만 원에서 2025년 4천만 원대까지 하락

가성비 전기차 수요 증가

| 가성비 중심으로 변화하는 전기차 수요

| 배터리 가격 감소로 생산 가격 감소

BEV용 배터리팩 가격이 2024년 최초로 97\$/kwh로 하락 (100\$/kwh부터 내연차와 가격이 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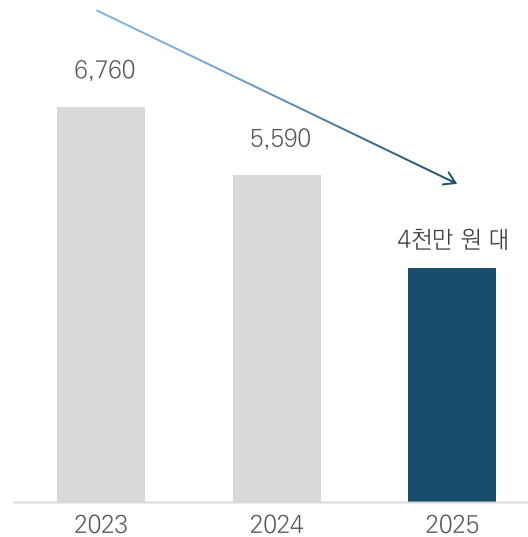
| 중국 전기차의 유입과 공격적인 가격 인하

중국 전기차대기업 BYD, 5월 23일 30% 이상 가격을 인하하자 경쟁사들도 잇따라 가격을 인하

| 소비자 가성비 중심 선호 확산

불황으로 인해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특히, 2030세대의 경우 더욱 저렴한 차로 쏠리는 경향 있음

| 전기차 평균 판매단가 (단위: 만 원)



출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국토교통부

| 회사 별 가성비 전기차와 성과

기아 EV3



- 기본 가격 3,599만 원에 보조금 적용 시 2,000만 원 대 후반까지 하락
- 출시 1년 만인 25년 6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1위 달성

BYD 아토 3



- 기본 가격 3,150만 원에 보조금 적용 시 2,000만 원 대 후반까지 하락
- 25년 4월 한국 진출 첫 달,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1위 달성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 기본 가격 3,150만 원에 보조금 적용 시 2,000만 원 초중반대에 구매 가능
- 25년 4월 기준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 2위 기록

출처: 보도자료 취합

08-3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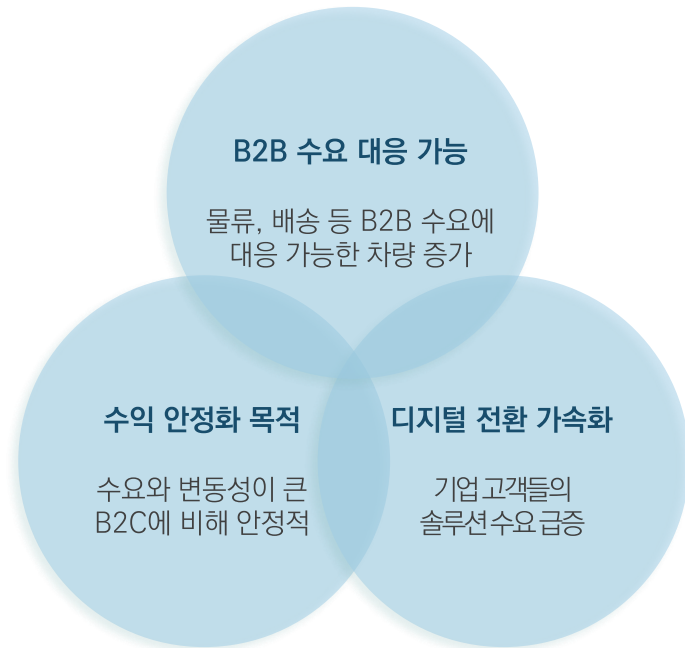
#B2B 강화

기술 발전이 뒷받침하는 B2B 강화

- 모빌리티 업계는 B2B 수요 대응 가능 차량 증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 수익 안정화 등의 이유로 B2B 사업을 강화 중
- B2B 전용 플랫폼 활용, B2B 모빌리티 솔루션 판매, B2B 전용 모빌리티 공급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B2C 시장 포화. 기술 발전으로 B2B 시장 더욱 확대

| 모빌리티 업계 B2B 강화 이유



출처: 보도자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B2B 강화 전략

| 유형별 모빌리티 기업 B2B 강화 사례



 우버 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대상 우버 포 비즈니스(U4B) 한국 서비스 공식 출시 (2025. 2) • 별도의 기업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차별화
 쏘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쏘카 엔터프라이즈, 기업 맞춤형 구독 상품 출시 (2025. 7)
 카카오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주차 플랫폼 솔루션을 수출하는 업무 협약 체결 (2025. 5) • 해외 도시, 정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통합 솔루션 수출
 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봇 친화 병원 인프라 구성을 위한 한림대성심병원과의 업무 협약 체결 (2025.4) • B2B 기반 로보틱스 솔루션 사업을 확장하며 로봇 판매 뿐만이 아닌, 로봇 운영·관제·유지보수를 포함한 구독형 서비스 모델도 검토 중
 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모빌리티 PBV 공급. 삼성전자와 B2B전용 '스마트싱스프로' 플랫폼 연동 (2025.2) • B2B 고객의 PBV 차량과 외부의 비즈니스 공간을 연결하고 관리 및 모니터링 가능

출처: 보도자료 취합

08-3 트렌드

#K-중고차 수출

K-중고차,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 급상승

- 글로벌 중고차 시장이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성장 흐름 형성 중
- K-중고차 수출 시장 규모는 매년 커지고 있으며, 2025년 역시 4월까지의 추세를 보면 작년대비 50% 이상 성장 전망
- 주된 수출처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으로, 1위인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액 57.2% 급증

국산 중고차 수출 열풍

| 중고차 수출증가 요인

| 신흥국들의 경제성장

경제성장으로 자동차 수요는 증가했으나 경제력 문제로 신차 구매가 어렵고, 국내 중고차 공급이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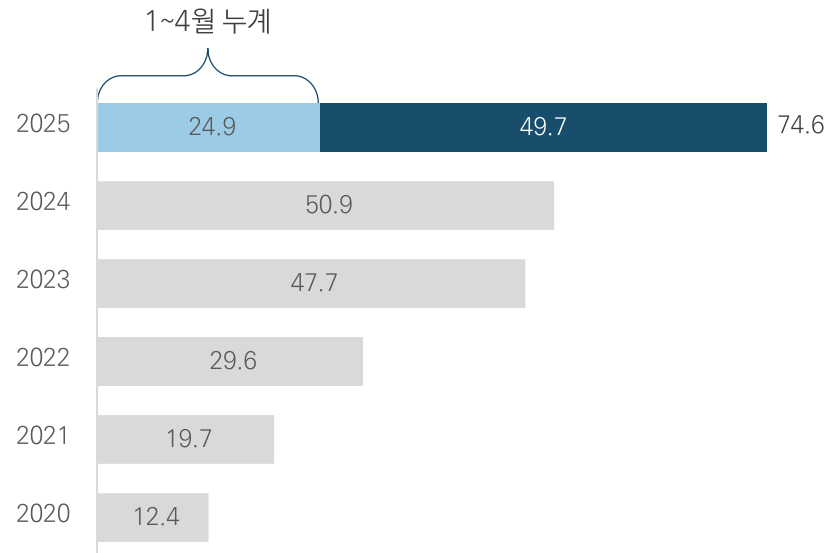
| 브랜드 경쟁력 증가

가성비 좋은 차라는 인식에 더해 부품 수급이 쉽고, 고장 시 수리가 간편

| 지정학적 이슈

전쟁으로 인해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내전이 종료된 시리아 등의 차량 수요 증가

| 국내 중고차 수출액 (단위: 억 달러, *2025년 5~12월은 추정치)



주된 수출처는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신흥국

| 국가별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고차유통연구소

출처: 무역협회, 한국자동차연구원

08-4 미디어

2025년 상반기 모빌리티 업종 광고비 분석

2025년 상반기 모빌리티 업종 배너 광고비는 128.7억 원.
이는 전 분기 대비 38.4% 감소한 수준.

모바일 광고비가 81.4억 원으로 PC에 비해 높음.

PC 광고비는 47.3억 원.

모빌리티 업종의 배너 광고비는 두 분기 연속 하락세

세부 분석 결과, 수입자동차 > 승용자동차 > 수송기기부품
및 용품 순으로 광고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남.

수입자동차 광고비는 2025년 상반기 64.3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53.4% 감소. 승용자동차는 26.5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15.2% 감소

출처: 리서치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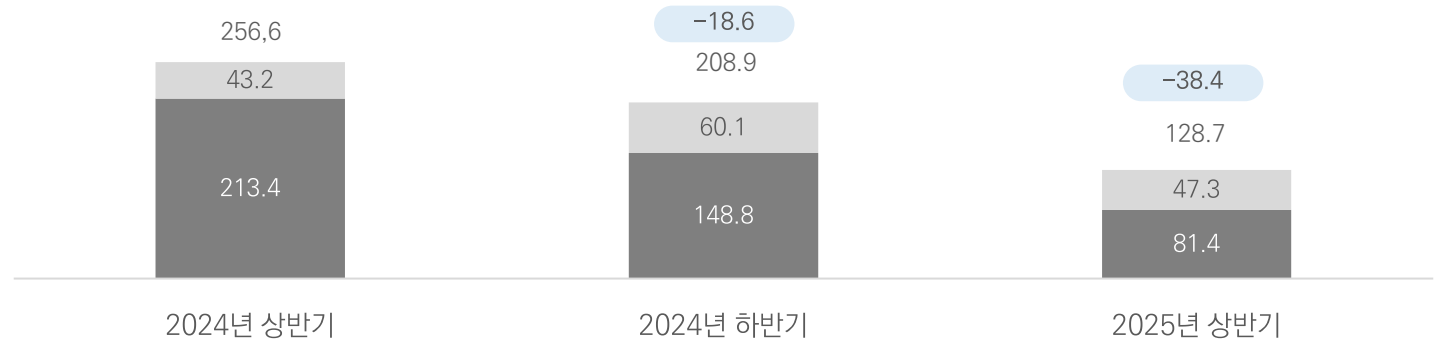
2025년 상반기 기준 관련 업종 배너 광고 (PC+MO) 광고비 분석

* 추정치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국내 모빌리티 업종 반기별 디지털 광고비 (배너 광고)

■ 이전 분기 대비 광고비 증감률
■ PC 광고비
■ MO 광고비

(단위: 억 원 (막대 그래프), % (증감률))



국내 모빌리티 세부 업종 반기별 디지털 광고비 (배너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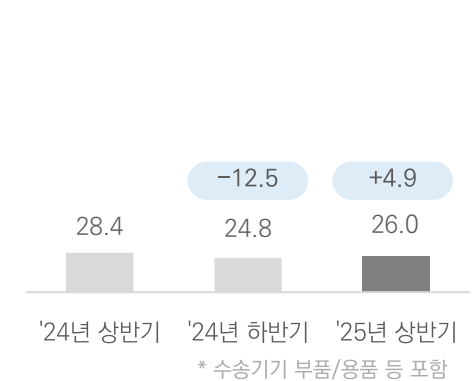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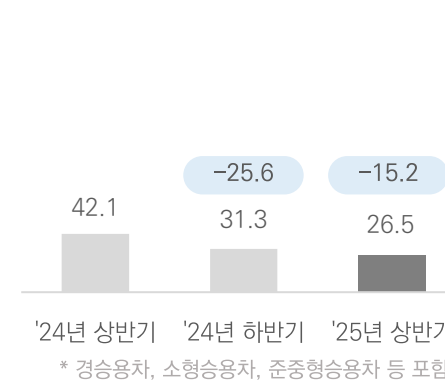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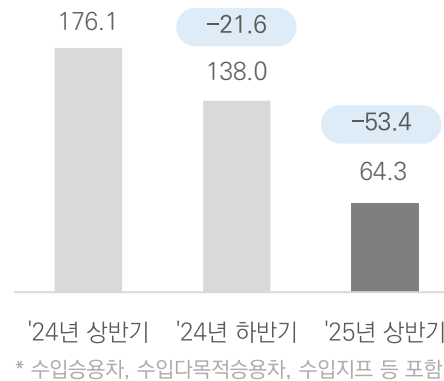
(단위: 억 원 (막대 그래프), % (증감률))

| 수입자동차 광고비*

| 승용자동차 광고비*

| 수송기기부품 및 용품 광고비*

■ 이전 분기 대비 광고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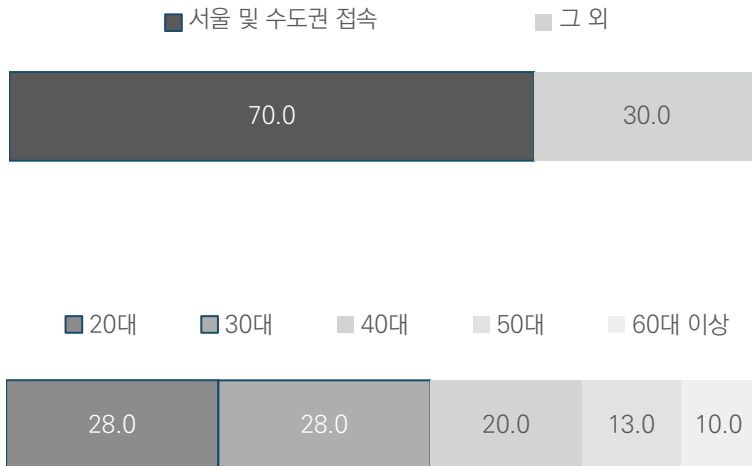
08-4 미디어

#첫차

중고차의 처음을 바꾸다

- 다양한 거래 안전장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애 첫차 구매부터 세컨카 구매, 타던 차량의 온라인 처분이 가능한 중고차 플랫폼
- 2030세대 비중이 56%로 가장 높으며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접속하는 비중 70% 이상
- 노출 혹은 유입 중심부터 특정 유저 타기팅 및 업종 특화 지면까지 캠페인 특성에 딱 맞는 상품 집행 가능

메인 타깃 인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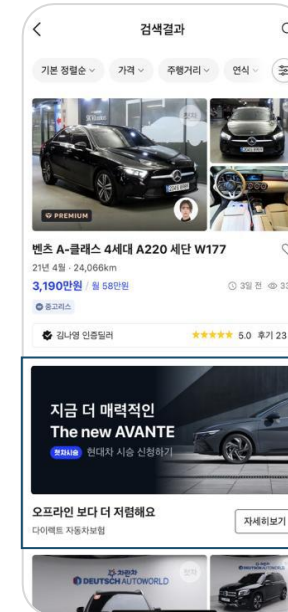
* 상품소개서 기준

주요 상품 및 노출 지면 예시

시작 팝업(MO)



첫차 시승신청(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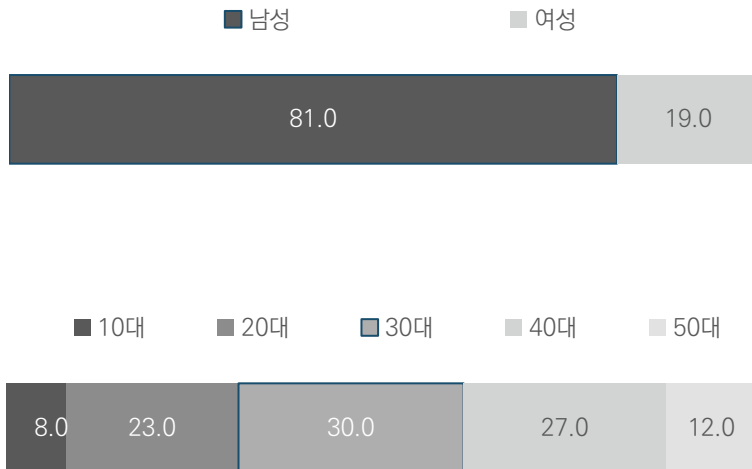
08-4 미디어

#엔카닷컴

나의 드림카 플랫폼

- 실시간 비교 견적과 직거래 간편 등록으로 내 차를 팔고, 엔카가 직접 진단한 매물을 타본 후 내 차 구입을 결정할 수 있는 플랫폼
- 월간 약 60만 명, 구매력있는 20~49세 남성 유저를 중심으로 광고 노출 가능
- 노출 중심의 브랜딩부터 페이지 유입을 유도하는 상품까지 다양한 광고 상품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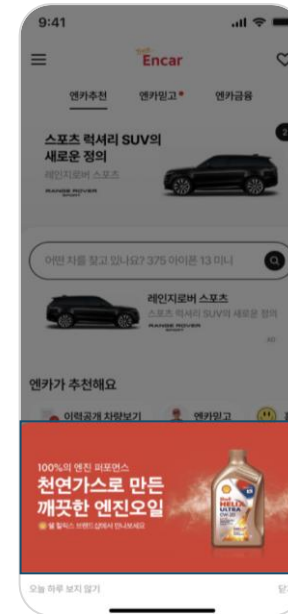
메인 타깃 인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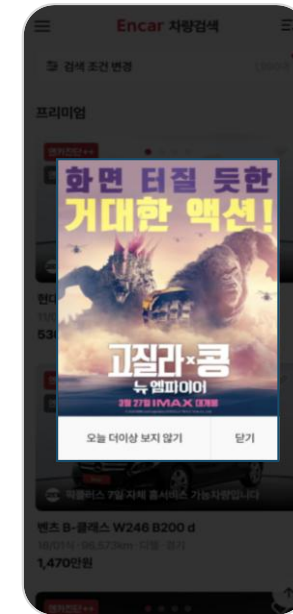
* 상품소개서 기준

주요 상품 및 노출 지면 예시

인트로 팝업(MO)



리스트 팝업(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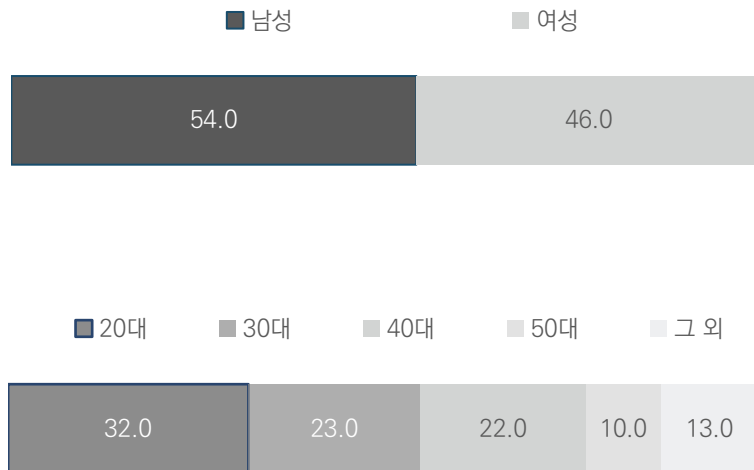
08-4 미디어

#카카오모빌리티

모든 이동을 위한 모빌리티 서비스

- 택시/대리 등 이동, 항공/기차 등 여행, 주차/세차 등 차량 관리 서비스를 한번에 제공하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 평균 MAU 1,300만 명, 2040세대 비중 77%로, 자동차 소유 혹은 택시를 이용하는 경제력 있는 유저 다수 분포
- 앱 내 노출되는 디스플레이 광고부터 택시 뒷좌석에 노출되는 RSE 광고, 옥외 매체 및 택시 랩핑까지 집행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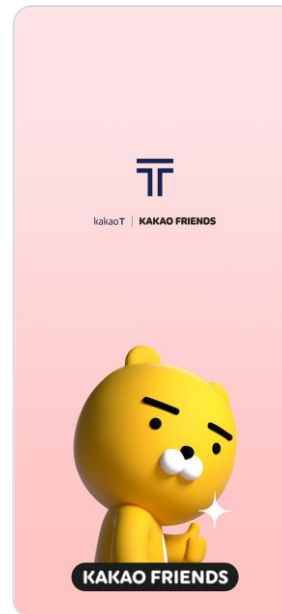
메인 타깃 인구 통계



* 상품소개서 기준

주요 상품 및 노출 지면 예시

스플래시(MO)



RSE 홈 일반



E.O.D

리포트 문의 | 인크로스데이터랩 | idl@incross.com

※본 리포트의 2차 가공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마인뉴스 구독하기

incross  **SK square**

© 2025 Incross - All rights reserved.

This document constitutes the exclusive property of Incross. Incross retains all copyrights and other rights over, without limitation, Incross' trademarks, technologies, methodologies, analyses and know how included or arising out of this document. The addressee of this document undertakes to maintain it confidential and not to disclose all or part of its content to any third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Incross. The addressee undertakes to use this document solely for its own needs and the needs of its affiliated companies as the case may be on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the document for services of Incross. No other use is permitted.